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① 미니체육대회: 공동체별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일시: 2001년 9월 10일(토) 오후 1시 30분 - 오후 6시

장소: 교회 (학생 예배 홀)

경기방식: 남녀 개인 단식과 남녀 혼합 복식 (중복출전 금지, 게시판 참조)

조추첨: 9월 4일 1부 예배 후 친교실 (문의: 현석호 장로, 박영태 집사)

② 단기선교: 바누와트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신청서: 교회 로비).

일시: 2011년 11월 23일(수) - 11월 30일(수)

선교지역: 바누와트 삼마지역. 대상: 칼리지 Form 5 - 장년

회비: 1100불(개인) 훈련: 8주 (개강 10.6 매주 목)

③ 알림: 각 공동체장들은 개역개정 성경, 찬송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성도들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4일까지, 견본 참조).

④ 장터: 이번 주 갈보리 장터 품목은 어린이를 위한 책(과학탐구, 위인전 등)입니다.

⑤ 판매: 북음개를 판매합니다. (1여 선교회 주관)

⑥ 감사: 아버지의 날을 맞아 점심 준비 해주신 2여 선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⑦ 월례회: 부부, 4여 선교회 월례회가 1부 예배 후(조 추첨 후) 있습니다.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 선교사 (집시사역)

▷ 중국: 김강한 목사 (탈북자사역)

국내 선교지

▷ City Mission 섬김

▷ 밀알장애우 봉사

9월 교회일지

미니 체육대회:

9월 10일 (토요일)

성찬주일:

9월 25일 (주일)

해외 한인 장로회

뉴질랜드 노회:

9월 29일 (목요일)

교우 소식

이사: 정현자(오지연) 집사

13 Burnside Court Rosedale, Albany

444-4548

9월 예배 기도자 및 안내자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 안내	주방 봉사
4일	고성일	심창진	박혜숙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1일	김영길	방병아	박후임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8일	박덕철	원미경	손조훈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5일	박병민	최장한	정옥자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투병 중인 기성 형제가 항암제 부작용이 없이 3차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강건해지도록.
2.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공급 하심을 체험하도록, 환경이 주는 안락함이 신앙의 나태함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늘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3. 가정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 가족을 섬기며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가족들에게 보이도록.
4. 바누와트 단기선교에 많은 성도가 관심을 갖고 기도로 협력하며 준비와 훈련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한인 교회들이 뉴질랜드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송재, 박제용
지휘	: 신경화
반주	: 송민영, 유지선



갈보리 교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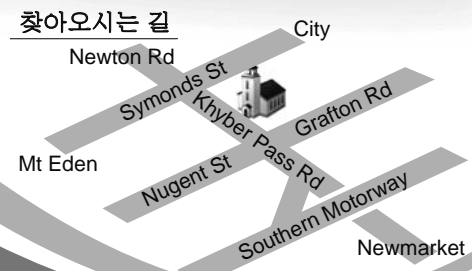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 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9월 4일

주보 13권 36호

www.calvary.org.nz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148:13-14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10장	다함께
*성서교독	52. 시편 119편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80장	다함께
대표기도	고성일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2:14-24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베드로의 설교	이태한목사
찬송	191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다음주 기도: 김영길장로	9월 18일: 박덕철집사
건축헌금	지난주 헌금: \$210.00	총계: \$598,377.19

주일2부예배

오후3시	다함께	
찬양	청년찬양단	다함께
기도	심창진목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9:3-9, 17	인도자
설교	길을 가다가!	심창진목사
찬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주 기도: 방명아집사

성서교독 52.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수요예배

오후7시30분	다함께	
찬양	수요찬양단	다함께
기도	박혜숙집사	
성경봉독	사사기 2:1-10	인도자
설교	여호와와의 사자 2	이태한목사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찬송	359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수요예찬 기도: 유승재장로
다음 수요기도: 박후임집사

갈보리 칼럼

스시와 구색 맞추기

스시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스시샵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직원으로 일하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흑(?) 스시 샵을 직접 경영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배워두면 좋을 듯싶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를 사는 사람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특히 스시 샵 그것도 Mall 같은 곳에서 7day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일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주변에서 스시 샵을 운영하는 성도들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스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날은 아침도 조금 먹고 점심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가 가곤 합니다. 반가이 맞이하는 성도는 “점심 드시지 않았죠?” 묻습니다. 그럴 때면 시치미 뚫 떼고 “먹고 오는 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곧이듣고 스시를 주시지 않는 날이면 그날은 배를 쫄쫄 굶고 옵니다. 물론 그런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왕이면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오려고 일부러 손님이 뜸할, 주로 바쁜 시간을 피해서 가는데 목사의 심리가 참 묘함을 느낍니다. 막상 가서 손님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 성도와 함께 이야기할 여유가 없고 얼굴조차 마주 대할 시간이 없어도 손님이 많이 있는 것이 흐뭇합니다. 반대로 손님이 없을 시간, 그래도 하루 중 한가할 시간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갔음에도 그 기대대로 샵이 한산하면 정작 마음이 짠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업엔 켄병인 목사가 “집사님, 웬 스시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수십 가지를 만들어야 합니까? 손님들이 선호하는 몇

가지만 만들면 시간도, 인력도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는 척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목사님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구색을 갖추어놓아야 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 찾는 단 한 종류의 스시라 해도 구색을 맞추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색 맞추기는 꼭 장사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분명히 구색 맞추기 신앙이 있지 않을까요? 별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으면 뭔가 심리적으로 허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라면 분명히 구색 맞추기 신앙입니다. 구색을 갖추기 위해 만든 스시는 결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즐겨 먹는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한쪽 구석, 약간은 외진 곳이나 다른 스시 다 진열하고 공간이 남는 아무 곳이나 놓아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색 맞추기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잘 두지 않습니다. 또 구색을 갖추기 위해 만들어 놓은 스시는 그것만 먹는 사람이 아니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듯이 구색 맞추기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스시는 많이 만들지 않기에 만들 때마다 어색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색 맞추기 신앙은 하나님 신앙을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자연스럽게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화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색 맞추기로 간주하면 하나님 역시 나를 구색 맞추기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을 스시샵에서 깨닫습니다. 다음 주쯤 스시샵에서 구색 맞추기 스시를 다 먹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색 맞추기 신앙인이 없어진다면 말입니다.

- 이태한 목사